

잘 보이지 않고 표시 단위도 서로 달라

소비자 배려하지 않는 내용량 표시 실태



제품의 내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내용량 표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글씨로 제품 뒷면에 숨겨져 있을 뿐 아니라 표시 단위마저 통일되지 않아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공식품과 일용잡화를 대상으로 내용량 표시 실태를 알아본다.

- 조사/오명문(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 정리/임은정(소비자정보국)

가공 식품이나 세제류를 살 때, '양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유심히 살피는 소비자들을 보게 된다.

특히 요즘은 포장 방법이 다양해지고 같은 제품이라도 갖가지 크기로 나누어져 나오고 있어 '이 제품이 얼마 만큼의 양에 어느 정도의 가격을 매기고 있는가' 하는 점은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포장재나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의 양을 내용량(중량)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과 일용잡화의 경우 이 내용량 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글씨 크기가 너무 작게 되어 있어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병·통조림류, 육가공품, 주류, 장류 등 가공식품과 주방세제, 샴푸 등 일용잡화 총 26개 품목 71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용량 표시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제점 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내용량 표시돼 있어 확인이 불편하다

국내 가공식품 47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용량 표시 위치를 조사한 결과 내용량만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 허가번호 등 다른 표시 사항과 혼재하여 일괄 표시하는 경우가 57.4%로 27개 제품이었다.

이들 일괄 표시한 제품 중 대부분인 23개 제품의 표시 위치가 제품 뒷면에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량을 확인하는데 불편을 주고 있었다. 간장, 라면, 과자 등이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

이에 반해 수입 가공식품은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내용량 표시를 제품 전면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미국 FDA 식품 규정에 의하면 상품명과 내용량 표시는 반드시 상품이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주표시면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식품위생법에 의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표시 위치에 대한 명시 없이 제조사마다 다른 위치에 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품 뒷면에 일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용 잡화는 조사 대상 14개 제품 중 내용량을 일괄 표시한 제품이 5개, 별도 표시한 제품이 9개로 별도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별도 표시한 9개 제품 중에는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내용량을 기재한 전면표시 제품이 8개에 이르러 가공식품보다는 양호한 상태였다.

일용잡화 중에서 샴푸, 비누는 내용량을 제품 뒷면에 일괄 표시하고 있었지만 주방세제, 섬유유연제 등은 제품 전



같은 회사의 참기름인데도 내용량은 ml로, 적은 용량은 g으로 단위를 혼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를 통일하거나 ml와 g을 병기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면에 비교적 큰 활자로 적어놓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리했다.

문제점 ②

같은 품목이라도 무게 단위와 부피 단위를 혼용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중 일부 제품은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무게 단위(kg, g)과 부피 단위(ml, l)를 혼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주로 참기름과 섬유유연제 등의 품목에서 이런 식의 표기를 하고 있다. 참기름 같은 경우 g과 ml를 사용하는데 동일 제조사의 동일 품목이라도 어떤 제품은 내용량을 g으로 표시하고 어떤 제품은 내용량을 ml로 표시해서 소비자들은 어떤 것이 더 많고 적은지, 싸고 비싼지를 판가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참기름은 액체 상태이므로 ml나 l를 거래 단위로 표시해야 하지만 현재는 g과 ml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섬유유연제 역시 내용량을 g과 ml로 표시하고 있는데 동일 품목이지만 제조사별로 사용 단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무게 단위와 부피 단위는 상품 특성에 따라 동일 상품에 통일되게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비교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혼용되어 쓰이면 동일 단위로 환산했을 때 내용량이 달라

질 수 있다.

g과 ml은 똑같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100ml의 참기름은 100g의 참기름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동일품목에 대해서는 내용량의 표시 단위를 통일하거나 '참기름 00g(△ml)' 식으로 함께 표시해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문제점 ③

글씨 크기가 작아 한 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국산 가공 식품의 내용량 크기 표시 크기는 평균 9.4포인트로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의 평균 표시 크기인 79.5포인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글자 크기의 차이가 심하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 브랜드나 제품명이기 때문에 내용량 표시 같은 실질적인 구매 정보를 소비자들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에 비해 수입 제품의 내용량 표시 크기는 평균 13.2 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의 평균 표시 크기는 46.6포인트로 국산 제품에 비해 제품명·브랜드명과 내용량 표시의 크기 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내용량 표시의 글씨 크기에 대해서 '제품의 인쇄 가용 면적과 비교하여 크



NET WT. 18 OZ.
(1 LB. 2 OZ.) 510g

수입 제품의 경우 제품이 진열되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주표시면 하단에 내용량 표시가 기재돼 있다. 글씨 크기도 커서 알아보기 쉽다. 미국 FDA 식품 규정에 의하면 내용량 표시는 반드시 주표시면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로 제품명·브랜드명의 글씨 크기와 내용량 표시의 글씨 크기가 큰 차이를 보였다. 제품명은 평균 106.6 포인트로 내용량 표시 평균 글씨 크기의 17.8 포인트의 6배에 달했다.

이 경우도 '표시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 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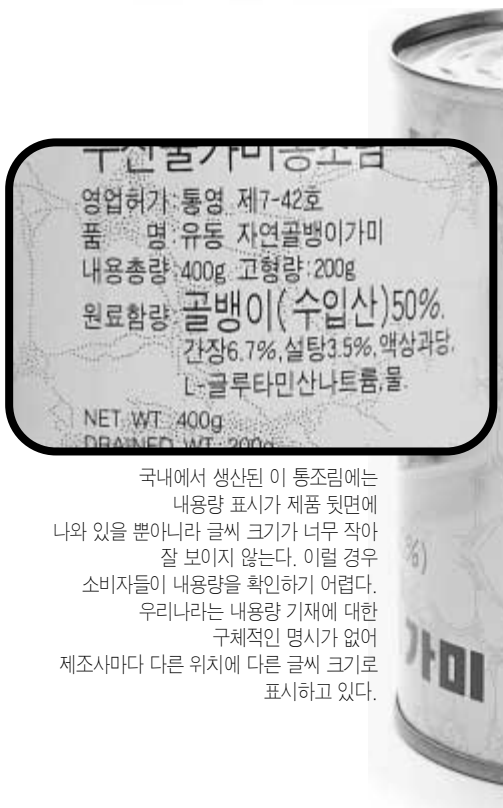
품목별로는 설탕비누, 화장비누, 샴푸 등의 내용량 표시 크기가 작은 반면 주방세제, 섬유 유연제 등은 비교적 큰 글씨로 표시되고 있다.

거래 단위에 따라 가격을 표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도'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때문에 상품의 거래 용량을 보기 쉬운 위치에 일정한 활자로 표시해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내용량 표시는 소비자의 경제적인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표시 항목인 만큼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흡한 점이 많았다. 수입 제품과 달리 표시 위치, 글씨 크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 내용량 표시 문제의 주된 원인이다.

소비자가 내용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 표시가 아닌 별도 표시를 하고 ▲표시 위치를 상품을 진열했을 때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제품 전면에 표시하고 ▲내용량 표시 크기는 제품명·브랜드명의 크기 비율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 참기름이나 섬유유연제 등 액체성 제품의 경우 동일 제품이라도 내용량 표시를 할 때 무게 단위와 부피 단위가 혼용되고 있다.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쉽게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 단위를 통일하도록 관련 정부 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산물가미통조림
 영업허가: 통영 제7-42호
 배 명: 유동 자연골뱅이가미
 내용총량: 400g 고풍량: 200g
 원료함량: 골뱅이(수입산)50%
 간장6.7%, 설탕3.5%, 액상과당,
 L-글루타민산나트륨, 물.
 NET WT. 400g
 DRAINED WT. 200g

국내에서 생산된 이 통조림에는 내용량 표시가 제품 뒷면에 나와 있을 뿐 아니라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내용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내용량 기재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제조사마다 다른 위치에 다른 글씨 크기로 표시하고 있다.



수산물가미통조림
 영업허가: 통영 제7-42호
 배 명: 유동 자연골뱅이가미
 내용총량: 400g 고풍량: 200g
 원료함량: 골뱅이(수입산)50%
 간장6.7%, 설탕3.5%, 액상과당,
 L-글루타민산나트륨, 물.
 NET WT. 400g
 DRAINED WT. 200g
 P.CE NO. 07774
 영업허가: 통영 제7-42호
 배 명: 유동 자연골뱅이가미
 내용총량: 400g 고풍량: 200g
 원료함량: 골뱅이(수입산)50%
 간장6.7%, 설탕3.5%, 액상과당,
 L-글루타민산나트륨, 물.
 유통기한: 위의 표시일까지
 PRODUCT OF KOREA

품목별로는 라면, 과자, 쿠키, 맥주, 소시지, 초콜릿 등이 내용량 표시가 작게 되어 있었다.

일용 잡화도 가공식품과 마찬가지로

기를 정하도록 하는 관련 법규가 있지만 인쇄 가용 면적 및 면적 계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